10.18219/ddmh..112.202012.211

동아시아학술원의 사회과학 연구
— 성균중국연구소를 중심으로

李熙玉*

Ⅰ. 서론
Ⅱ. 성균중국연구소의 구조와 기능
Ⅲ. 중국연구영역의 방향 제시와 새로운 실험
Ⅳ. 네트워크 확산과 산관학의 새로운 모형구축
Ⅴ.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동아시아학술원의 성균중국연구소의 성과를 통해 한국에서의 중국연구의 위상과 연구 인프라를 점검하고 대학부설 연구소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중국 관련 연구소는 중국연구 수요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방향성을 확립하지 못했고,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남아 있었다. 또한, 중국연구의 생태계가 약해 학문적 의제를 기획하는 능력이 부족했고, 연구의 공론장과 플랫폼이 없는 상태에서 융합연구도 제약되었다.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 학문과 정책, 교육과 연구의 결합을 시도하지 못하는 등 한국형 중국연구, 한국형 중국연구소의 모형을 구축하는 데도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2012년 성균중국연구소는 새로운 중국연구의 거점을 마련하고 새로운 연구 의제를 기획하고 이를 사회로 확산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지향했다. 실제로 다양한 국제학술회의, 네트워크, 학문과 정책을 결합한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성과를 입증하였다. 그 결과 한국내 싱크탱크 평가에서 중국연구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랭크되면서 짧은 시간 내 한국의 대표적 중국연구소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연구소의 성공모형은 예산, 인력, 공간이라는 연구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한 학문적 수월성의 확보, 안정적인 네트워크, 중국연구 의제와 담론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을 적극적으로 개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성균중국연구소는 대학 내 분과학문과의 융합, 다른 중국연구소와의 협업,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연구 모형의 개발,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소통을 향한 노력, 한국형 중국연구 발신의 문제 등이 향후 과제이다.

주제어 : 성균중국연구소, 동아시아학술원, 중국연구, 한중공공외교연구, 성균차이나 브리프

Ⅰ. 서론

해방 이후 한국 사회과학 토양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한반도 분단체제 속에서 국제적 반공연대와 '강한 국가와 약한 시민' 속에서 성장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냉전적 대결의식이 강화되었고 적성 국가였던 중국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냉전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았다. 역사학 분야에서 연구지평을 크게 확장한 민두기가 제도로서의 중국학에 성과를 냈다면, 리영희는 강단 바깥에서 중국문제의 해설자로 자임하면서 운동으로서의 중국학을 시도했다. 그를 한국적 맥락에서 비판적 중국연구의 출발로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1] 실제로 '87년 체제'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공'으로 호명하는 등[2] 반공주의 체제 구속성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로 중국연구는 '공산권연구협의회'라는 학술조직이 구축될 정도로 극복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한국사회와 다른 존재 방식에 대한 '내재적 연구'(internal approach)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3]

그러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 탈냉전이라는 거대한 전환 속에서 해방공간과 북한에 대한 재인식 논의가 중국연구에도 적용되었고, 『마오쩌둥선집』 등 1차 자료들이 출판되었으며, 1992년 한중수교[4] 이후 자료의 개방, 현지조사, 현지 유학이 이루어지면서 연구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중국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수요가 폭증하고, 정부의 지역연구에 대한 정책적 필요로 인해 중국학과 또는 중국지역학과 등이 만들어지면서 학문 후속세대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연구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또는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중국연구를 포착하기 어려웠고, 과학적 연구방법론이 결여되면서 사례연구에 치중되었으며, 무엇보다 중국연구(China studies)라는 교차학문적 특성, 지역연구와 분과학문(discipline)을 결합하지

---

1) 백영서, 「중국학의 궤적과 비판적 중국연구: 한국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8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2, 590면.

2) 이러한 호명은 최근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 행정부가 중국공산당과 중국 또는 중국인을 분리하는 데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징후를 새로운 이념적 재냉전으로 부를만하다. National Security Council,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5/U.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Report-5.20.20.pdf(검색일: 2020년 9월18일) 참조.

3) 이희옥,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모색』, 창비, 2003, 30~32면.

4) 이희옥, 「한중수교 교섭과정 연구」, 『중소연구』 43(3),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19, 121~152면.

못했다. 즉 중국어에 기반한 중국지역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추구하는 기능적 커리큘럼 등이 구축되어 분과횡단적 연구, 고전중국과 현대중국의 결합, 한국적 맥락의 중국의 재구성, 동아시아적 차원에서의 중국연구를 모색하는 데까지 발전하기는 어려웠다.

2000년 3월에 설립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은 기존이 한국학의 인식과 방법론을 혁신하는 한편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결합해 동아시아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성균중국연구소의 전신이 되는 2004년 동아시아 지역연구소를 설립하고 2007년부터 『동아시아 브리프』를 간행하면서 동아시아의 사회현상을 다루는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의<아시아와 한류>,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인 몽골 ICT부 전자정부 연수사업(e-Mongolia),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한 전자정부 교육사업 운영(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국정관리대학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연구성과의 국제화를 시도했다.[5] 이러한 동아시아지역연구소는 2012년 성균중국연구소로 확대 · 개편되었다. 통상 연구소 발전전략은 개별 지역 또는 국가 연구를 확대하면서 연구 시너지를 도모해 왔으나. 성균중국연구소는 이와는 달리 동아시아연구를 중국연구로 축소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동아시아의 핵심대상 국가와 지역의 사회과학을 두루 포괄하기 어려운 연구환경을 고려해 '잘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지역 연구로 특화한 것은 대학 내 중국연구와 교육 인프라가 상당 부분 갖추어져 있었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학(재단과 본부)의 전략적 판단과 정책 의지가 있었다. 실제로 국내에서 유일한 단과대학인 유학대학, 국내 최초의 중국 MBA 과정인 중국대학원을 설치했고, 대학 내 3천여 명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이 있었으며 학교법인인 삼성재단의 중국에 관한 전략적 관심도 반영되었다.[6] 당시 대학부설 중국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 등의 프로젝트에 의존해 운영했고, 대기업 부

5) 〈아시아와 한류〉 프로젝트는 한국과 아시아 7개국의 문명교류사를 한국과 해당국가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했다. 그 결과 중국 4종, 베트남, 우즈벡 각 2종, 일본,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각 1종을 한국어 및 해당국가 언어로 출판했다.

6) 실제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로 한중관계가 악화되기 이전 학교재단인 삼성그룹은 해마다 중공중앙당교의 고위급 연수단을 초청해 일부 일정을 성균관대학에서 소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국내 최초의 중국 MBA 과정인 중국대학원도 삼성그룹의 계약 학생들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등 중국과의 전략적 네트워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설 중국연구소도 기업현안을 중심으로 한 경제와 산업분야에 특화되었으며, 국책연구기관의 중국연구센터도 정권의 수요에 복무하면서 연구의 객관성, 장기기반 연구에 집중할 수 없었다. 민간연구소도 예산과 인력의 제약 속에서 지속가능한 연구를 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대학본부는 연구소 운영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사회 공공재(public goods)를 생산하고 기초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했다. 연구소 소속의 박사급 인력충원, 대학본부 건물에 연구와 사무공간 제공, 연구소 운영경비를 대학본부가 부담했다. 그 결과 단기간에 성균중국연구소가 한국 내 중국연구의 거점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과 일본, 대만 등에서도 연구소 활동을 주목했으며, 국내의 일본과 유럽 지역연구 분야에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7] 실제로 다른 대학 중국연구소가 성균중국연구소 모델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이 글은 한국의 중국연구 동향, 성균중국연구소가 한국의 중국학계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 연구소 활동에 나타난 한국의 중국학계의 연구 흐름과 한국적 중국연구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한편 그 내재된 한계를 적시하면서 대학부설 연구소의 지향성과 한국에서의 중국연구의 방향성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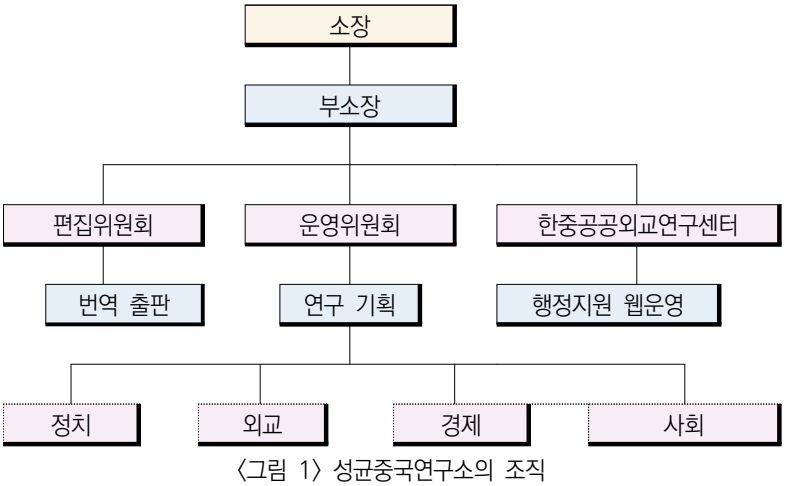
Ⅱ. 성균중국연구소의 구조와 기능

한국의 중국연구 기구는 크게 국책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민간연구소, 대학연구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으로 정치외교 영역을 연구하는 곳으로는 국립외교원 내 외교안보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통일연구원 등이 있고, 경제 · 산업영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있다. 민간연구소로는 세종연구소, 아산정책연구원 등에서 중국과 미중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서울, 인천, 충남,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의 싱크탱크에서 전문연구

7) 「한국의 브루킹스 꿈꿉니다」, 『조선비즈』, 2015.11.2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20/2015112000631.html(검색일: 2020년 10월 3일); 「중국연구, '한국의 브루킹스'로 키울 것」, 『중앙일보』, 2012.12.27, https://news.joins.com/article/10271740(검색일: 2020년 10월 3일).

인력을 확보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중국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부설 중국연구소로는 성균관대를 비롯해 주요 대학에 고르게 설치되어 있다. 특히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원, 한국외국어대 중국연구소,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등이 자체적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등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산업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제외하고 국책기관과 민간기관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연구소들이 전문연구 인력 2~3명으로 중국 사회과학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등 취약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균중국연구소는 독특한 운영 기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중국연구에 집중하면서도 중국과 동아시아, 중국과 북한, 중국과 일본, 중국과 지역 등을 연구 의제로 삼아 동아시아 학술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있다. 연구소의 전문 인력은 대체로 정치, 외교, 경제, 사회학 분야의 전문가로 중국 등 해외에서 유학하는 등 해당 지역 언어에 능통했다. 연구소 조직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편집위원회, 대학본부의 주요 보직교수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공공외교 단과대학을 설립한 지린대학 공공외교학원과 공동으로 2014년 한중공공외교연구센터를 산하 기구로 설치해 '한중공공외교연구포럼'의 공동개최 등에 관한 학술교류협정 MOU를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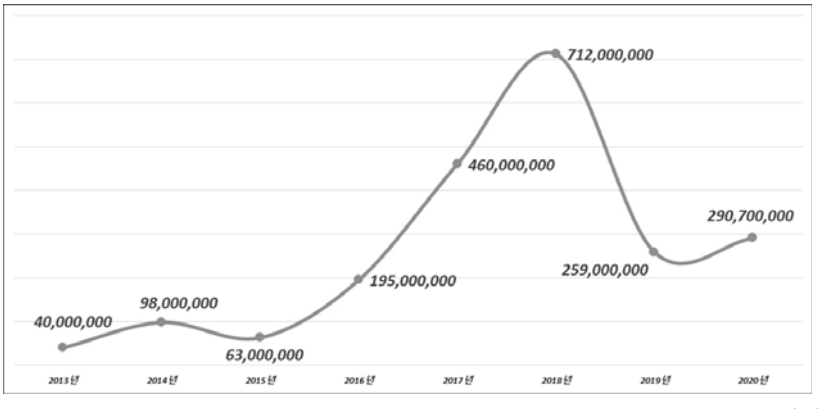


〈그림 1〉 성균중국연구소의 조직

한편 성균중국연구소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교비와 별도로 적극적인 외부 프로젝트를 수주해 재정을 안정화시켰다. 특히 한국연구재단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부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연구소에 프로젝트를 위탁해 이루어졌다. 사실 인문사회 분야 연구소로 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연간 수억원의 연구비를 수주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연구소는 연간회원과 종신회원 등 유료 회원제를 도입했으며, 실제로 외교부, 연구기관, 기업, 학생과 개인 등이 가입해 연구소 재정은 물론 연구소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편 성균중국연구소는 대학의 공간 제약 속에서도 대학본부 5층에 설치되었고, 연구소장을 비롯해 박사급 연구인력 5명과 석사급 연구보조 인력 7명을 포함한 평균 13명이 상근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연구소장은 출범부터 2020년까지 다섯 차례 연임하면서 초기 연구소가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

〈표 1〉 성균중국연구소 시설현황

구분		편재
연구소 전용공간(A)		118.8㎡
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	공간(B)	71.4㎡
	편제인원	5명
	평균	14.28㎡/ 인
계(C=A+B)		190.2㎡



(단위: 원)

〈그림 2〉 연구비 수주현황

Ⅲ. 중국연구영역의 방향제시와 새로운 실험

1. 학술활동: 중국연구의 주도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서의 현지조사가 가능해지고, 제한적이지만 1차자료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비록 사회주의 체제의 구속성이 작동하고 있었으나 중국과 먼저 수교한 일본, 미국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던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고 중국을 보는 시각도 변했다. 사실 한중수교 전후 한중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당시 중국은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은 개혁개방 노선이 지배하고 있었고,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학습 의지도 있었으며,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을 유치하려는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었다. 특히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등 자본주의 국제경제 질서에 스스로 편입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당시 중국은 개혁개방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고, 더구나 미국이 '9.11사건' 이후 모든 역량을 중동 전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중국이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8] 이러한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전후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중국위협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2003년의 고구려사 왜곡을 둘러싼 역사 갈등이 있었으나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양국의 필요성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혔다.[9] 그러나 중국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한중수교 10주년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서구적 또는 외재적 관점,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편향을 비판하는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10] 여기에 중국 현지에서 유학한 연구자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중국연구 인력풀이 두터워지고 중국을 '있는 그대로(what it is)' 해석하는 한편 서구중심적 중국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구방법을 교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

8) 이희옥, 「동아시아판의 변화와 한중관계의 동태적 전환」, 『동향과 전망』 99,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5, 64~66면.

9) Lee, Hee-Ok, "China's Northeast Project and South Korean-Chinese Relations", *Korea Journal*, Vol.45. No.2, 2005, pp.239~264.

10) 김희교, 「한국의 비판적 중국담론, 그 실종의 역사」, 『역사비평』 57, 역사비평사, 2001, 252~273면; 이희옥, 「한국에서 중국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비평』 61, 역사비평사, 2002, 360~374면.

이 시기에 출범한 성균중국연구소는 한국 내 다양한 정책담론을 학문의 공론장으로 옮겨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화자(話者)가 된 주장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여기에 근거해 한국적 맥락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했다. 특히 이것은 2013년 이후 시작된 연례국제회의, 국제공동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연례국제학술회의는 연구소 대표적 브랜드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3년부터 시행한 연례국제학술회의는 국내외 중요한 중국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청년학자들의 연석회의 장을 마련해 학문 후속세대의 대화 플랫폼을 제공했다. 구체적인 학술회의 주제는 '중국의 국가대전략과 중국의 꿈(2013)', '중국의 새로운 아시아 구상과 전략(2014)', '중국의 길과 한중관계(2015)', '한중관계와 동북아의 미래(2016)', '복합차이나 리스크(2017)', '중국 개혁개방 40년 평가(2018)', '미중관계와 동북아 질서(2019)'로 이어졌다. 특히 이 회의를 통해 한중 양자회의를 넘어 일본, 홍콩, 대만의 학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에서 중국-대만, 중국-일본 학자들 사이의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둘째, 국제공동세미나이다. 대표적으로는 2006년부터 베이징대학 정부관리학원(이후 정부관리와 정치발전연구소, 다시 국가거버넌스 연구원으로 변경)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당시로서는 베이징대학의 단일 단과대학과의 정례교류는 이례적이었고, 중국형 민주주의, 거버넌스, 국가전략을 연구하는 저명한 전문가들이 이 회의에 대거 참여했다. 그러나 교류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동아시아 학술원의 조직개편이 있었고, 베이징대학 정부관리학원도 학내 갈등으로 학술교류가 끊어질 위기가 있었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지원으로 성균중국연구소가 교류를 이어갔다. 이후 학술원과 베이징대학 학원(단과대학)의 교류는 핵심 연구소를 중심으로 실질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중거버넌스 포럼' 형식으로 정착시켰다. 15년 동안의 논의했던 회의주제는 국가거버넌스, 사회거버넌스, 민주개혁, 발전경로, 사회리스크 등이었다. 그리고 일부 학술회의 결과물은 중국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기도 했다.[11)]

셋째, 한중 공공외교 연구포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은 타국의 국민을 상대로 막대한 인력과 재정을 바탕으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적극적으로

---

11) 谢庆奎,『民生视阈中的政府治理』,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3.

추진해 왔으나, 한국은 2010년을 '공공외교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출발한 후발국가였고 중국도 한국과 유사한 시기에 소프트파워 및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해외에 공자학원 등을 설치하면서 공공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비록 출발이 늦었지만, 한국과 중국 모두 공공외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외교의 연구과 실천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12] 성균중국연구소가 출범할 무렵은 한중 양국이 공공외교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동북지역의 핵심 거점대학이었던 지린대학이 중심이 되어 단과대학인 공공외교학원을 설립하는 등 공공외교연구와 교육의 메카로 부상했으며, 특히 한반도에 인접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한중공공외교연구에 집중했다. 2012년 지린대학 류더빈 원장(공공외교학원)은 성균중국연구소에 한중공공외교연구센터의 공동설립을 제안해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2012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한국과 중국에서 한중 공공외교연구포럼을 운영하면서 학계 뿐 아니라 정책부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표 2〉 한중공공외교연구포럼

회차	개최일	주제	장소
제1회	2014.09.	한중 공공외교연구의 새로운 지평	한국, 서울
제2회	2014.10.	한중공공외교: 비교와 귀감	중국, 창춘
제3회	2015.05.	싱크탱크와 한중 공공외교	한국, 서울
제4회	2016.05.	공공외교에서의 국가이미지 형성	중국, 창춘
제5회	2017.02.	한중 공공외교와 대학의 역할	한국, 서울
제6회	2018.06.	한중관계: 전략적 상호신뢰 구축 및 도전	중국, 장춘
제7회	2019.06.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한중공공외교	한국, 서울
제8회	2020.10.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공공외교의 역할 모색 (웨비나 회의)	한국, 서울 중국, 장춘

이 밖에도 격년마다 개최하는 동아시아 중국학대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현대중국학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례세미나, 연구소 내부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12) 이희옥, 「중국의 공공외교 확산: 체계와 목표」, 『중국학연구』 54, 중국학연구회, 2012, 357~381면; 李熙玉, 「韓中公共外交與人文紐带」,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55(3),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編輯部, 2015; 김상배 외, 『지구화시대의 공공외교』,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리서치 클러스터, 쟁점이 있을 때마다 전개하는 크고 작은 국내외 학술회의, 일본 와세다대학 중국연구소, 산둥대학 한중관계연구센터, 중국국제우호연락회의 평화와 발전연구소, 대만의 국립정치대학 동아연구소와의 정기교류를 통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출판활동: 연구의제의 기획과 대중화

성균중국연구소는 국내 중국연구의 담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연구결과의 출판, 저변이 약한 국내 중국학계의 여건상 상업적으로 소비되기 어려운 중국내 연구성과의 소개, 학문과 정책을 결합한 도서를 기획하거나 번역해 출판했다. 2012년 연구소 출범 이후 <아시아와 한류>의 결과물인 20여권의 도서[13]를 제외하고도 2020년 11월 말 현재 36권을 출판하는 등 매년 평균 5권씩의 단행본을 출판했다. 대부분은 당시 중국연구의 흐름을 발 빠르게 포착한 기획연구서로 북 · 중 관계, 일대일로, 한중관계, 중국방안,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중국의 길, 중국의 혁신에 관련된 것이었다. 예컨대 중국의 당-국가 체제, 문명국가론, 미중무역 마찰, 중국의 발전동력, 중국정치개론 등이 그것이다. 필요한 경우 중문으로 책을 출판해 한국내 연구성과를 중국으로 발신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공공외교, 한중관계, 북한경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왕성한 출판 활동의 성과에 따라, 중국 측에서 모든 출판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새로운 방식도 나타났다.[14]

〈표 3〉 성균중국연구소 출판현황

구분	제목	편 · 저자	출판사항
편저 (18)	차이나 핸드북	성균중국연구소	김영사, 2014
	북중관계 다이제스트	성균중국연구소	다산출판사, 2015

13) 이희옥 외, 『중국 연선 거점도시의 진출 및 양국 협력전략 연구』, 산업연구원, 2016; 이희옥 외, 『복합차이나리스크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14) 푸단(復旦)대학 국제 및 공공사무학원은 성균중국연구소를 통해 성균관대 출판사에 출판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출간의뢰를 하기도 했다. 첫 사업으로 푸단대학 정치학과 주임인 류젠쥔이 중국의 정치사조를 심층분석한 책이 『전환시대 중국정치의 논리』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편저 (18)	한중관계의 재구성	성균중국연구소	성균관대출판부, 2015
	일대일로 다이제스트	성균중국연구소	다산출판사, 2016.
	중국 지도자의 수첩	성균중국연구소	성균관대출판부, 2016
	동북아정세와 한중관계	이희옥 · 먼훙화 외	성균관대출판부, 2016
	한중수교 25년사	성균중국연구소	성균관대출판부, 2017
	한중 공공외교 다이제스트	이희옥 · 류더빈 외	다산출판사, 2017
	한중관계의 새로운 모색	성균중국연구소	다산출판사, 2017
	중국 솔루션	성균중국연구소	성균관대출판부, 2018
	차이나핸드북(전면개정판)	성균중국연구소	김영사, 2018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성균중국연구소	지식공작소, 2018
	남북한 관련 헝가리와 불가리아의 외교문서	이희옥	도서출판 선인, 2019
	중국, 스스로의 길을 묻다	성균중국연구소	성균관대출판부, 2019
	한반도 평화와 중국	성균중국연구소	지식공작소, 2019
	전환기 동북아질서와 한중관계의 재구성	성균중국연구소	도서출판 선인. 2020
	인공지능시대, 중국의 혁신	성균중국연구소	커뮤니케이션북스, 2020
국문 역서 (15)	시진핑, 개혁을 심화하라	중공중앙문헌연구실	성균관대출판부, 2014
	중국의 매력국가 만들기	먼훙화	성균관대출판부, 2014
	중국 공산당을 개혁하라	옌이롱 외	성균관대출판부, 2015
	세계, 중국의 길을 묻다	먼훙화 · 푸샤오위	성균관대출판부, 2015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통치하는가	후안강	성균관대출판부, 2016
	무위무불위	자오치광	성균관대출판부, 2017
	다시, 중국의 길을 묻다	이희옥 · 먼훙화 외	성균관대출판부, 2017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보고	성균중국연구소	지식공작소, 2018
	중국은 문명형 국가다	장웨이웨이	지식공작소, 2018
	국제정치의 사회적 진화	탕스핑	성균관대출판부, 2019
	중국의 당국가 체제는 어디로 가는가	천밍밍	성균관대출판부, 2019
	무역백서: 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중국의 발전동력	츠푸린	성균관대출판부, 2019
	현대중국정치	린샹리	사회평론, 2019
	전환시대 중국정치의 논리	류젠쥔	성균관대출판부, 2020

중문 역서 (4)	韓半岛年度報告(2016):东北亚形势與中韓關系	门洪华・李熙玉	성균관대출판부, 2016
	韓半岛年度報告(2017): 中韓關系的新探索	门洪华・李熙玉	성균관대출판부, 2017
	中韓公共外交交摘	刘德斌・李熙玉	성균관대출판부, 2018
	制裁與变化中的朝鮮经济	李锺奭・崔银珠	도서출판 선인, 2020

특히 중국연구의 공구서(工具書)인 차이나 핸드북을 발간하면서 화제가 되었다.[15] 당시 한국학계는 제대로 된 중국연구 가이드북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일본의 중국핸드북을 몇 해 동안 번역해 소개한 것이 전부였다. 사실 좋은 공구서는 좋은 가이드의 역할을 한다. 성균중국연구소는 이를 쟁점이 있는 공구서로 구체화했다.[16] 한국의 중국연구자 74명이 참여해 원고를 집필했고 국내 최대 출판사의 하나인 <김영사>에서 출판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중국 공구서를 가지면서 한국의 중국학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중국에서도 호평을 받았으며 지금도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이다.[17] 그러나 공구서의 특성상 변화하는 중국을 담아야 했다. 2019년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제 변화를 완전히 개정한 증보판을 발행했다.[18] 이 개정판에는 87명의 중국연구자가 참여했고 항목도 초판의 104개 항목에서 116개로 늘렸으며, 법률부분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했다. 이처럼 『차이나 핸드북』은 단순한 공구서의 의미가 아니라. 한국의 중국연구에서의 이슈영역, 연구자의 전공분야 분포 등을 확인하는 등 의외의 소득도 거둘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균중국연구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프로젝트를 수주해 <아시아와 한류> 시리즈, 헝가리 등 동유럽에서의 한국관련 문서를 확보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한편 이 중 핵심자료를 번역해 출판했다. 또한 중국 지도자의 한국방문을 앞두고 독자적으로 기획도서를 출판해 대학공공외교를 실험했고, 2018년 이후 본격

15) 「어마무시한 나라, 중국 핵심 설명서」, 『중앙일보』, 2014.3.16, https://news.joins.com/article/14162248 (열람일: 2020년 10월 3일).

16) 성균중국연구소 엮음, 『차이나 핸드북: 늘 곁에 두는 단 한 권의 중국』, 김영사, 2014, 5면.

17) 「74名韓國各领域學者編撰'中國百科全書'」, 『环球时報』, 2014.3.17, https://world.huanqiu.com/article/9CaKrnJEAAe(검색일: 2015년 7월 8일).

18) 성균중국연구소 엮음, 『차이나 핸드북: 늘 곁에 두는 단 한 권의 중국』, 김영사, 2018.

적으로 전개된 미중 무역마찰, 중국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 등의 계기마다 학계와 정책영역에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출판해 관련연구의 수월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3. 정기간행물 발행

성균중국연구소가 펴내는 정기간행물은 계간지인『성균차이나브리프』와 중문계간지인『성균중국관찰(成均中國觀察)』이 있으며, 반년간 학술지인『중국사회과학논총』이 있다.『성균차이나 브리프』는 동아시아 지역연구소가 펴낸『동아시아 브리프』를 전신으로 삼아 2020년까지 통권 57호를 결호 없이 발간했다.『성균차이나브리프』는 반학술 계간지로 해당 시기 중국의 학문과 정책이슈를 발 빠르게 포착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내외 학계와 정책영역의 주요 인물을 찾아 연구소 소장이 직접 인터뷰어로 참여한 <파워인터뷰>, 중국의 트랜드를 포착해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분석하는 <차이나 포커스>, 그리고 화제가 되었던 쟁점을 분석한 <기획특집>, 그리고 중국현지의 특파원이나 특파원을 역임하고 돌아온 중국전문기자들이 쓰는 <중국전문 언론인 코너>, 중국관련 신간을 주례사 비평을 넘어 저자가 집필의도를 직접 소개하는 <저자노트>, 한국과 중국의 청년학자들의 우수한 학술논문의 핵심을 전달하는 <학술동향>, 중국의 주요한 지역을 소개하는 <중국지역탐방>, 중국의 주요한 문건들을 번역해 소개하는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잡지 편집체계는 최대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신규 코너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해 왔다.

한편『성균중국관찰』은 국내 유일의 본격적인 중국관련 잡지이다. 연구소의 핵심사업의 하나는 한국의 중국연구의 지평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시작했다. 초기에는 연구소의 국제화 차원에서 영문본을 기획하기도 했으나, 세계의 중국 연구자들 대부분 중국어를 해독할 수 있고, 중국내에서 한국의 중국연구를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 중문판 제작을 결정했다. 기본적으로『성균중국관찰』은『성균차이나브리프』의 체재를 원용하면서도 중화권 독자들을 겨냥해 <한국의 창>을 만들어 한국정치, 한국경제, 한국사회에 대한 무게있는 글을 실었다. 이것은 한국 언론이 가진 고질적 편향을 극복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한국사회현상을 조망해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독자들의 깊은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참여한 필진들도 국내 저명한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를 비롯한 학계의 중진들이 집필에 참여했으며, 특히 한국정치학회 회장이 몇 년간 이어가며 집필하면서 잡지의 권위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리고 권두논문은 창간 이후 줄곧 연구소장이 직접 집필해 한국내 동향을 균형적으로 전달했다. 그 결과 발간과 동시에 중국어 사회적 연결망인 위쳇(we-chat)계정에 소개되어 중국독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19] 그리고 부록에는 한국의 주요 정책문건을 번역해 소개함으로써 중국내에서 한국문헌에 대한 접근도를 높였다.

한편『성균차이나브리프』와『성균중국관찰』의 권력인터뷰에 응한 인사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한국의 정치권계에서는 박병석 국회부의장(현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작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있고 통일연구원장,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산업연구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비롯한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의 기관장들이 인터뷰에 응했다. 한국학계에서는 한국의 중국연구의 1세대인 정종욱(서울대, 주중 한국대사), 서진영 교수(고려대, 정치학), 김광억(서울대, 인류학), 하영선(서울대) 등이 망라되었다. 있다. 중국도 공공외교의 대부로 불리는 자오치정(전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 추궈훙(주한 중국대사)를 비롯해 저명한 학자인 후더쿤(우한대), 왕지스(베이징대), 츠푸린(중국해남발전연구원), 엔쉐퉁(칭화대), 일본의 모리 가쯔코(와세다대), 다니엘 A. 벨(칭화대)이 참여했다.

한편 2019년 2월부터 반년간 본격 학술지인『중국사회과학논총』을 출판했다. 이 학술지는 한국과 중국어로 된 학술논문을 실었다.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공식 등재학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비중 있는 국내외 학자들이 논문을 보내와 짧은 기간 동안 위상을 확보했다. 특히 이 잡지는 중국의 푸단대학 등 유수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교수승진 등에 반영되는 잡지로 선정되어 논문 투고가 쇄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 연구소 위쳇(we-chat) 계정을 정기 구독하는 중국인은 1279명으로 대체로 중국문제 및 한반도 연구자, 공무원들이며 중국의 31개의 성과 직할시에 두루 분포되어 있다.

Ⅳ. 네트워크 확산과 산관학의 새로운 모형구축

1. 협력 네트워크의 확산

성균중국연구소는 국내외 가장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연구소 출범 초기에는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외연을 확대했다. 중국의 핵심 싱크탱크인 중국국제우호연락회 산하 '평화와 발전연구소', 중공중앙당교 산하 '국제전략연구원', 보아오아시아 포럼,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재경전략연구원' 등이 있고, 주요대학으로는 베이징대학 국가거버넌스 연구원, 푸단대학 한국연구센터, 산동대학 한중관계연구원, 우한대학 변경과 국경연구원, 화교대학 국제관계학원, 지린대학 공공외교학원 등이 있다. 중국 이외의 국가와 지역으로는 대만의 국립정치대학 동아연구소, 일본의 와세다대학 중국연구소 등과도 교류하고 있다. 연구소 네트워크의 핵심원칙은 지속가능한 교류와 '손에 잡히는 성과'에 두었다. 기존의 많은 연구소들이 예산과 인력의 제약 속에서 외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교류내용을 심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뿐만 아니라 베이징대 정부관리학원, 중공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 지린대학 공공외교학원 등과는 정례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책자형태로 발간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제주연구원, 한국기자협회, (재)여시재 등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고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제주연구원-성균중국연구소는 3자 컨소시엄을 구축해 중국(하이난)개혁발전 연구원과 제주 및 하이커우에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와는 중국연수가 예정된 기자를 상대로 파견 전 교육을 주관했고 실제로 현지 탐방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재단법인 여시재와는 '중국의 부상'과 관련한 대형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했고 연구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을 중앙일보에 시리즈로 게재하고 e-book 형태로 출판했다.

연구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정책적 수요도 늘어났다.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면서 한중 양자관계도 보완성보다는 경쟁성이 강해졌고, 전방위적 교류가 확산되면서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갈등도 빈번해졌다. 고구려사를 둘러싼 역사분쟁, 사드(THAAD)배치를 둘러싸고 안보리스크가 경제리스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자관계는 크게 냉각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실무

적인 정책수요가 증대했고, 연구소가 선두에서 그 역할을 담당했다.

첫째,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보고서이다. 특히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 외교부는 한중공공외교 현황조사, 한중이미지 공동조사 사업을 지원해 기존의 횡단면 여론조사를 종적조사를 통한 추적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문화관광부와도 일대일로 연선도시 관광협력방안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한중일 지성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편 한중거버넌스 포럼에 서울시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고 중국 연구자들이 서울시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서울의 경험을 중국에 전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교류협력의 결과는 <서울특별시 대중국 교류방안 연구>, <중국도시와의 전략적 교류방안 연구(2020)>라는 연구보고서로 생산된 바 있다.

둘째, 기업차원에서는 기업의 대중국진출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했다. 사드 배치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롯데그룹의 대중국진출전략 컨설팅, 대중국 사업의 비중이 높았던 아모레퍼시픽그룹과는 2016년부터 MOU를 맺고 주 2회 CEO 리포트를 생산하면서 호평을 받았다. 이 밖에도 연구소장과 연구소 연구원 차원에서 삼성그룹, 롯데그룹, KB국민은행 등 대기업의 인력개발원 등에 강의와 자문을 통해 연구소 사업을 대외적으로 확장했다.

셋째, 한국의 대표적 공공외교 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과의 지속적인 중국 사업이다. 2017년부터는 매년 MOU를 맺고 포괄적인 대중국공공외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중의 학자들이 공동연구를 책자로 발간하는 <한중정책연구시리즈>,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석-박사엘리트 유학생의 한국이해 프로그램인 <재한중국인대학원생 100인 포럼>[20] <한중 언론인 다이얼로그>, <한-대만 정책대화> 등 다양한 신 사업을 발굴해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축했다.

넷째, 국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이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토대연구(2019)>, <중국 한반도전문가의 한반도 인식과 특징연구(2018), <중국연선 거점도시의 진출 및 영국협력전략연구(2016)>, <복합차이나 리스크 연구(2018)> 등에서 괄목한 만한 연구보고서를 생산했으며,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관리하

20) 이 프로그램은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동행 취재해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인 유학생들 "우리는 교육이 아닌 돈벌이 대상"」, 『중앙일보』, 2019.12.2, 26면.

고 있다.

〈표 4〉 성균중국연구소 네트워크 현황

구분	협력기관	체결일자	내용
해외 (16)	베이징대학 정치발전과 정부관리연구소	2012.12	연례 국제학술회의 개최, 공동연구
	중공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	2013.03	전략포럼 개최, 한반도연도보고 공동출판
	(대만) 국립정치대학 동아연구소	2013.12	공동 국제학술회의, 정책대화, 전문가특강,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2014.01	국제학술회의 개최, 자료 교환, 전문가교류
	지린대학 공공외교학원	2014.03	한중공공외교연구포럼 개최, 공동연구
	푸단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	2014.07	공동연구, 차세대 한반도연구자 워크숍
	<동북아논단>	2014.10	중국의 핵심간행잡지(CSSCI) 공동기획
	산둥대학 중한관계연구센터	2015.08	국제학술회의 개최, 공동연구, 한중청년학자포럼 공동운영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	2015.08	공동연구, 자료 협력
	우한대학 변경과 해양연구원	2015.10	자료 협력, 연구원 상호 방문, 공동연구
	(日)와세다대학 현대중국연구소	2017.01	공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자료협력
	중국(하이난) 개혁발전연구원	2017.04	공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공동연구, 자료 및 출판 협력
	화교대학 국제관계학원	2018.05	국제학술회의 개최, 간행물 출판협력
	후난사범대학 동북아연구센터	2019.04	국제학술회의 개최, 공동연구, 학술교류
	지린성 사회과학원 조선 · 한국연구소	2019.05	국제학술회의 개최, 공동연구, 학술교류
	중국국제우호연락회 평화와 발전연구센터	2019.11	공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공동연구
국내 (3)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2012.12	J-China 포럼 공동개최, 차이나 Lab 전략적 제휴
	한국기자협회	2014.10	중국전문기자 연수
	제주연구원	2016.06	공동학술회의 개최, 공동연구, 자료교환

2. 인적교류

연구소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면서 해외 석학초청행사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해외석학 초청 프로그램은 연구소 활동을 확산하는 것과 함께 한국의 중국연구를 국제적으로 소통하는 장으로 기능했다. 연구소가 관련 세미나에 초창한 학자를 제외하고도 많은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소 행사에 참여했다. 중국 사회에 대한 세계적 업적을 낸 바 있는 리렌장(홍콩중문대), 대만정치학회 회장을 지내고 중국 엘리트 연구의 일가를 이룬 커우젠원(국립정치대), 일본의 중국연구를 대표하는 아마코 사토시와 아오야마 류미(와세다대), 중국의 현능주의(meritocracy) 연구의 권위자인 캐나다 국적의 다니엘 벨(산동대)[21], 히로키 다케우치(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학)를 비롯해 미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계 학자인 Zhao Quansheng(아메리카 대학), Zhong Yang(테네시대학) 등이 있다. 한편 중국 국제정치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왕지스(베이징대), 옌쉐퉁(칭화대) 등을 비롯해 중국 거버넌스 학계를 대표하는 왕푸취(베이징대), 옌지룽(베이징대), 중국전략연구의 대가인 후안강(칭화대), 중국정치학 이론혁신을 주도한 린상리(푸단대 부총장, 현 중공중앙정책실 비서장), 아시아 지역주의 권위자인 장윈링(중국사회과학원), 중국의 10대 걸출 경제학자로 선발된 츠푸린(중국 하이난 개혁발전연구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중국모델의 전파자인 장웨이웨이(푸단대), 저명한 경제학자인 리샤오(지린대), 징린보(중국사회과학원), 2차 대전에 관한 세계적 업적을 지닌 후더쿤(우한대), 중국의 유럽 전문가인 우즈청(난카이대학, 현 중공중앙 국제전략연구원장), 중국 유가철학을 대표하는 천라이(칭화대), 중국 농촌연구의 대가인 원테쥔(인민대) 등이 있다.

특히 정책분야의 정치인, 외교관, 관료들도 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정책소통을 전개했다. 전국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장,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을 역임한 자오치정(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 중공중앙 조직부 부부장 왕징칭(현 중국사회과학원 상무부원장), 공산주의 청년단 중앙단 서기 푸전팡,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부대표이자 6자회담 차석대표인 쉬부(현 중국국제문제연구원장), 9.19 공동성명 초안을 만들었던 양시위(중국국제문제연구원), 닝푸쿠이 전 주한대사 등이 대표단을 이끌고 연구소를 방문

21) 대니엘 A. 벨 저, 김기협 역, 『차이나 모델』, 서해문집, 2017; 성균중국연구소, 「파워인터뷰: 다니엘 벨(Daniel A. Bell) 칭화대학 교수-능력주의 정치와 좋은 리더의 선발」, 『성균차이나브리프』 2(3), 성균중국연구소, 2014, 10~17면.

했다. 특히 초청이 어려운 중국의 국가석학인 장강(长江)학자, 청년 장강학자 들이 연구소를 방문해 특강과 세미나 등을 통해 연구소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이들은 대부분 주요언론의 인터뷰, 『성균차이나브리프』의 <파워인터뷰> 등에 소개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연구소에서 특강 및 좌담, 한국의 정세를 청취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으로 정착되었다. 실제로 중국사회과학원 대표단, 중국국무원의 정책 참사(參事)그룹, 중국정부의 정책설명단 등 2020년말 까지 약 200여명의 학자들이 연구소를 방문했다. 뿐만 아니라 중단기 연구소의 방문학자, 객원학자로 국내외 중국학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연구소를 거쳐 간 학자들은 천융(저장대학), 진창이(연변대학), 리팅팅(베이징대), 덩신(중국외교학원), 순리핑(지린대학) 등이 있다. 이들은 이후 중국 내에서 성균중국연구소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한중학술 허브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3. 사회적 평가

성균중국연구소은 짧은 시간 국내 대표연구소로 자리매김했다. 초창기 중국연구는 한양대 중소연구소(현 중국연구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등이 주도했다. 특히 한양대 중소연구소는 한중수교 이전부터 대학 당국의 집중적 지원, 적성국가 자료를 볼 수 있는 비밀취급 인가를 바탕으로 '죽의 장막'에 싸인 중국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중국연구소로 자리잡았다. 학술지 『중소연구』를 167호(2020년 가을호 기준)까지 발행했으며, 실제로 『중소연구』는 한국의 중국연구 동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다.[22] 그러나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문호가 열리면서 연구 환경도 크게 좋아졌고 새로운 연구영역이 등장하면서 크고 작은 대학내 중국연구소들도 우후죽순격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부분 열악한 예산제약과 독자적인 연구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의존하면서 연

22) 문흥호, 「한국에서의 중국, 소련연구동향-한국에서의 중국연구동향 「중소연구」에 발표된 중국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15(2),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1991, 275~291면; 조영남, 「중소연구를 통해 본 한국에서의 중국 정치 연구」, 『중소연구』 6(1),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1997, 185~217면; 전성흥, 「한국의 중국 연구 발전 전망과 「중소연구」의 역할」, 『중소연구』 27(4),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4, 227~236면.

구 의제를 안정적으로 기획하기 어려웠고 더욱이 현실적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한 성균중국연구소는 창립 5년 만에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부분에서 랭크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중국이라는 단일 연구영역으로 삼는 연구소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굴지의 국책연구기관, 안정적 재원을 보유한 연구재단 등과 경쟁해 핵심 싱크탱크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했고 이후 공신력을 확대하면서 명실공히 중국연구에 관한 최고의 연구력과 정책수행능력을 지닌 연구소로 평가받았다.[23] 그 결과 성균중국연구소는 관련 학자들이 한국의 중국연구 동향을 확인하는 연구대상이 되기도 했다.[24]

〈표 5〉 한국의 싱크탱크 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7위	18위	14위	12위

출전: 『한국경제』(2018.1.31.); 『한경비지니스』(2020.3.2.) 등

이러한 성균중국연구소의 성과는 중국 정책과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고 중국담론을 선도한 결과이다. 또한 정부,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 과제를 수주하고, 공동연구의 진행,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연구의 정책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한 정치이벤트가 개최될 경우 국내에서 가장 빨리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코로나 동향을 「일일동향」과 「주간동향」으로 정리해 페이스북, 카카오 친구,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학계와 정책영역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25] 또한 『조선비즈』, 『아주경제』

23) 「[100대 싱크탱크] '난공불락' 외교안보硏 …… 10년 연속 '1위'」, 『한국경제』, 2018.1.31.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1801290115700014l(검색일: 2020년 10월 27일),"성균중국연구소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문제와 한·중 관계 악화에 대응해 많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순위 상승을 끌어냈다. 특히 성균중국연구소의 순위 상승은 큰 이목을 끌고 있다."; 「한국을 움직이는 정책 발전소 100대 싱크탱크」, 『한경비지니스』, 2020.3.2. http://research.ibk.co.kr/research/board/notice/download/251426/1(검색일: 2020년 10월 23일).

24) 성근제, 「과불급의 중국학: 성균중국연구소의 최근 연구동향과 관련하여」, 『황해문화』 104, 새얼문화재단, 2019, 361~373면.

25) 「구호품 한국이 더 줬는데 …… 중국, 일본에만 '감동' 말한 까닭」, 『중앙일보』, 2020.2.6. https://

등과 협약을 맺고 연구소 연구원들이 정기적으로 고정칼럼을 싣기도 했다.

〈표 6〉 성균중국연구소 언론노출도[26]

구분	2013~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성균중국연구소	91회	86회	111회	127회	103회
S 연구소	0 회	회	00회	3회	5회
Y 연구소	31회	31회	28회	21회	15회
K 연구소	71회	62회	76회	53회	60회

특히 성균중국연구소는 중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국 언론에는 성균중국연구소 앞의 수식어로 대부분 한국의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소라는 평가가 있었고 '인민망', '환구시보' 등에서 성균중국연구소를 다룬 소식을 심층 보도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성균중국연구소의 대표 잡지인 『성균중국관찰』과 『성균차이나브리프』는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지린사회과학원,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등 중국 내 유수기관에서 채용과 승진에 필요한 평가인증잡지로 인정하고 있다.[27]

Ⅴ. 결론

한국의 중국연구, 특히 대학에서의 중국연구는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

---

news.joins.com/article/23699029(최종열람일: 2020년 10월 20일);「구호품 일본의 2배 보냈는데 …… "중국은 일본에만 "매우 감동""」,『머니투데이』, 2020.2.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0607400993381(최종열람일: 2020년 10월 21일).

26)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의 검색결과(2020년 10월1일)에 따르면, 성균중국연구소는 총 노출건수 1,234,000건 이었으며, S대학 연구소는 552,000건, Y대학 연구소는 534,000건, K 대학 연구소는 111,000건의 노출도를 보였다.

27) 한 사례로 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저명 연구자는 한반도 관련 학술논문의 각주를 대부분『成均中國觀察』로 채우기도 했다. 林利民,「朝鮮核問題的战略本質: 反擴散還是地緣政治博弈?」,『現代國際關係』 2, 中國現代國際關系研究院, 2018, 第11~17頁.

과학과 인문학의 결합이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 사회과학 연구에서 행태주의 연구에 치중하거나 미시 담론을 거대담론과 연계하지 못한 채, 주로 엘리트 연구, 중앙-지방 연구, 군사연구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적 연구 환경에서 특정한 이슈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28] 이 과정에서 정치사회변동에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졌고 중국이 우리 문제를 어떻게 포착하고 위상을 정립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것은 인문학적 호흡을 사회과학이 흡수하지 못했던 여건과 학문적 풍토에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하나의 역사 복합체(historic bloc)이다. 현대중국의 정치제도와 경제운영의 원리, 사회거버넌스 등은 중국의 전통에서 발견된 것이 많다. 중국의 당국가(party-state)체제만 해도 중국의 전통과 사회주의가 결합된 것이다.[29] 따라서 고전중국으로부터 현실중국으로 흐르는 삶의 유동을 직시하고 그것을 분절시킴 없이 학술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30]

둘째, 중국연구를 동아시아 지평에서 비교의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중국문제는 글로벌 이슈뿐 아니라, 역사적 기억에서 유래한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성균중국연구소는 그동안 미 · 중 관계, 중국과 한반도, 중-인도관계, 중-일 관계 영역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그러나 주제영역(issue area)별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즉 거버넌스 비교, 지구지역학의 맥락에서의 중국 문제를 포착해 내는 것으로 자국학 중심의 방향성을 극복하는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 사실 근본적으로 중국문제는 한중일, 동아시아 지역주의, 다자주의, 개방과 연대 속에서 출발할 때 학문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한국형 중국연구의 모형개발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중국변수를 중심에 놓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 이것은 중국의 대한국(한반도)정책은 존재하지만, 한국의 대중국 정책이 없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중학술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중국 유수의 대학으로부터 '공자학원' 제의

28) 정재호 편, 『중국정치연구론』, 서울대 출판부, 2000.

29) 천밍밍 저, 이희옥, 김현주 역, 『중국의 당국가체제는 어디로 가는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30) 백영서, 「중국학의 궤적과 비판적 중국연구: 한국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8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2, 566면.

를 거절한 배경도 한국의 중국연구의 독자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중국연구를 세계적으로 발신할 수 있는 연구영역은 한반도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북한자료의 해독과 접근의 용이성이 있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민감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 공백을 파고들 수 있는 북중관계 등이 그것이다.

넷째, 대학연구소의 새로운 임무와 역할이다. 대학의 중국연구는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에 익숙해 있다. 따라서 중국연구의 핵심 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지 못했고, 정책수요에 따라 단기 프로젝트에 매몰되어 왔으며, 여기에서 연구의 중복과 연구영역의 편식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소 또는 프로젝트 지원이 중단될 경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대학의 중국연구소들은 고사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연구기관의 우산을 만들고 이를 횡적, 종적으로 결합하는 등 연구 특성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연구소의 고유한 기능은 분과학문과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학문적 담론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면서 한국형 중국연구를 정초하는 일이다. 이것은 단일 연구소의 인프라와 인력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소와 학회의 결합, 다양한 연구 클러스터의 기획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사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학문의 존재방식을 요구받고 있다.[31] 이런 점에서 사화과학과 인문학 그리고 과학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연구의제도 기획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구의 대중화와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이다. 성균중국연구소는 출판활동을 통해 연구의 대중화를 모색했다. 뿐만 아니라, 차이나 핸드북 출간을 계기로 한중우호협회 및 출판사와 함께 대중강좌를 열어 호응을 얻은 바 있고, 한국에 유학하는 석·박사 학생들을 상대로 재한중국인대학원생 100인 포럼도 운영했으며, 한국과 중국의 중국과 한국의 전문기자를 중심으로 한중언론인 다이얼로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2020년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공공외교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동아시아 학술원에 대학원 정규강좌인 <동아시아문화와 공공외교>, <동아시아 공공외교의 이해>를 개설했다. 그러나 보다 본격적인 중국연구를 위한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분야와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동아시아학술원의 연구와 교육기능을 겸비한 새로운 학술모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

31) 이희옥, 양철 편, 『인공지능 시대, 중국의 혁신』, 지식공작소, 2019.

성균중국연구소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의 중국연구에 새로운 분위기를 진작시키면서 짧은 기간 동안 중국연구의 메카로 떠올랐다. 이것은 중국연구를 사회공공재(public goods)로 만들어야 한다는 대학당국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소명의식의 결과이지만, 그만큼 우리 학계에서 중국연구의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다만, 성균중국연구소가 출범초기 추구했던 고유한 어젠다를 발굴해 한국적 중국연구의 국제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연구소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유한 성과를 축적해 온 국내의 다양한 중국관련 연구소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요컨대 향후 성균중국연구소는 대학 내 학문과의 융합,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연구모형과 연구의제의 개발, 중국 중심 네트워크를 구미와 소통하는 노력, 학문간, 이슈 영역 사이를 종횡으로 연계하는 중국연구 인프라를 확대, 심화하는 플랫폼 역할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20.11.10 심사일: 2020.12.07 게재확정일: 2020.12.08

참고문헌

김상배,『지구화 시대의 공공외교』,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대니엘 A. 벨 저, 김기협 역,『차이나 모델』, 서해문집, 2017
성균중국연구소 엮음,『차이나 핸드북』, 김영사, 2014, 2018
이희옥,『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모색』, 창비, 2003
이희옥 · 양철 편,『인공지능 시대, 중국의 혁신』, 지식공작소, 2019
이희옥 외,『중국 연선 거점도시의 진출 및 양국 협력전략 연구』, 산업연구원, 2016
정재호 편,『중국정치연구론』, 서울대 출판부, 2000
천밍밍 저, 이희옥, 김현주 역『중국의 당국가체제는 어디로 가는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谢庆奎,『民生视阈中的政府治理』,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3
National Security Council,"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김희교,「한국의 비판적 중국담론, 그 실종의 역사」,『역사비평』57, 역사비평사, 2001
문흥호,「한국에서의 중국, 소련 연구동향: 한국에서의 중국연구동향「중소연구」에 발표된 중국관련 논문을 중심으로」,『중소연구』,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15(2), 1991
백영서,「중국학의 궤적과 비판적 중국연구: 한국의 사례」,『대동문화연구』8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2
성균중국연구소,「파워인터뷰: 다니엘 벨(Daniel A. Bell) 칭화대학 교수-능력주의 정치와 좋은 리더의 선발」,『성균차이나브리프』2(3), 성균중국연구소, 2014
성근제,「과불급의 중국학: 성균중국연구소의 최근 연구동향과 관련하여」,『황해문화』104, 새얼문화재단, 2019
이희옥,「한국에서 중국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역사비평』61, 역사비평사, 2002
_____,「동아시아판의 변화와 한중관계의 동태적 전환」,『동향과 전망』99,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5
_____,「중국의 공공외교 확산: 체계와 목표『중국학연구』54, 중국학연구회, 2012
_____,「한중수교 교섭과정 연구」,『중소연구』43(3),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19
_____,『복합차이나리스크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전성흥,「한국의 중국연구 발전 전망과「중소연구」의 역할」,『중소연구』27(4),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4
조영남,「중소연구를 통해 본 한국에서의 중국정치 연구」,『중소연구』6(1),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1997

李熙玉, 「韓中公共外交與人文纽带」,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55(3),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編輯部, 2015
林利民, 「朝鮮核問題的战略本質: 反擴散還是地緣政治博弈?」 『現代國際關系』 2, 中國現代國際關系研究院, 2018
Lee, Hee-Ok, "China's Northeast Project and South Korean-Chinese Relations", *Korea Journal*, Vol. 45. No. 2, 2005

「구호품 일본의 2배 보냈는데 …… "중국은 일본에만 "매우 감동""」, 『머니투데이』, 2020.2.6
「구호품 한국이 더 줬는데 …… 중국, 일본에만 '감동' 말한 까닭」, 『중앙일보』, 2020.2.6
「[100대 싱크탱크] '난공불락' 외교안보硏 …… 10년 연속 '1위'」, 『한국경제』, 2018.1.31
「성균중국연구소 "한국의 브루킹스 꿈꿉니다"」, 『조선비즈』, 2015.11.20
「어마무시한 나라, 중국 핵심 설명서」, 『중앙일보』, 2014.3.16
「중국 연구 '한국의 브루킹스'로 키울 것」, 『중앙일보』, 2012.12.27
「중국인 유학생들 "우리는 교육이 아닌 돈벌이 대상」, 『중앙일보』, 2019.12.2
「한국을 움직이는 정책 발전소 100대 싱크탱크」, 『한경비지니스』, 2020.3.2
「74名韓國各领域學者編撰"中國百科全書"」, 『环球时報』, 2014.3.17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on the Social Science — Based on the Sungkyun Institute of China Studies

Lee, Hee-ok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tatus and research infrastructure of Chinese studies in Korea and present the goals and directions of the university-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through the achievements of the Sungkyun Institute of China Studies (hereafter: SICS) under the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So far, Korea's China-related research institutes have failed to establish academic direction despite a surge in demand for Chinese research, and ideological bias has remained. Besides, due to the weak ecosystem of Chinese research in Korea, the ability to plan academic agendas was insufficient, and convergence research was restricted in the absence of a public forum and platform for research. In particular, it failed to build a model of Korean-style Chinese research, failing to combine humanities with social sciences, academics and policies, education and research. In this regard, the launch of the SICS has greatly contributed to establishing a base for new Chinese research, planning new research agendas, and spreading them into society. It has been proved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networks, operation of various activity programs, and carrying out projects combining academic and policy. As a result of these achievements, SICS become one of Korea's leading Chinese research institutes in a short time as it was ranked as the only Chinese research institute in the Korea Think Tank evaluation. The success of the SICS model is the result of an effective combination of research infrastructure—budget, manpower, and space—, database, stable network, Chinese research agenda, and discourse. The future tasks of the SIC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ICS model will be the multidisciplinary approach, cooperation with other research institutes, development of a new research model for the AI era, efforts toward global communication beyond East Asia.

Key Words : Sungkyun Institute of China Studies,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Chinese research, Korea-China Public Diplomacy Study, Sungkyun China Brief